카자하스탄 선교 소감문

대학지구 분당 12캠퍼스 차재민

카자흐스탄 선교의 시작은 처음에는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해외선교는 낮설었고 저와 먼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해외선교를 갈 때 왜 가는지 잘 모르겠었고 해외는 여행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가본적은 없었습니다. 해외선교를 간다고 하면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했고 저에게 해외선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습니다. 해외선교를 신청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저에게 카자흐스탄이 먼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카자흐스탄 나라를 처음 알게 되었지만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카자흐스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차 모집이 마감되었지만 사람들이 점차 나가며 어느덧 8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의 마음속에는 괜히 해외선교를 가는건지, 사역에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건지 고민이 되면서 저도 나갈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그런 고민을 아셨는지 저에게 팀장을 맞기시며 제 고민을 없애셨습니다. 처음에 팀장을 맞게 되면서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팀원들이 중간에 더 나갈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명 한명 보내주시면서 선교가기 바로 전 주까지 팀원이 들어오면서 8명이였던 팀원이 12명으로 완성이 되면서 하나의 RTD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저희는 한국어 캠프를 준비했는데 현지 아이들이 참여해서 주일 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진행을 하기 전에 걱정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는지,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올지 예상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팀원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현지 애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저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국내선교 갔다와서 바로 준비하고, 긴장해서 잠을 자지 못한 지체들도 많기도 하고 문화가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텐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팀원들 한명 한명이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없는 한국어 캠프가 끝나고 분주한 상황이 끝나면서 저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선교사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픈 지체가 있다면 새벽에 한걸음에 와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한식 밥상을 준비해주시고 샤워실이 열악해 잘 씻지 못 한 저희들을 위해 온천탕을 대리러 가주시고 저희들을 자식들처럼 대해주시면서 그 마음이 저희 팀 모두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저희를 먹이고 더 좋은 것을 경험해주고 싶어하시는 선교사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성도들이 없으면 선교사님 두 분이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셨을 때 목자의 자리에 있는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영적 열매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어서 저에게 어려웠던 부분이였지만 선교사님 두분을 통해서 모임이 성도들, 목원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몸소 삶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선교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느긋느긋한 나라라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적의 침입을 받아보지 못 하고, 땅이 넓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다른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에게 필요한 장소였고 분주한 저의 삶속에 정말로 필요한 시간이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카자흐스탄으로 가신 선교사님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지만 카자흐스탄을 향한 선교사님의 두 분의 사랑,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선교사님과 헤어지고 삶으로 돌아갈 때 다시 빨라지는 시간 속에서 선교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선교와 마찬가지로 무계획 저의 계획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의 삶을 하나님께 더 온전히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최고의 팀원과 RTD를 섬기고 전도사님, 선교사님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니다.